

과학벨트·순천보선, 광주·전남 정치권과 엇박자

# 손대표 대립각 만큼 부담도 커진다

## “충청권 유치·야권연대 통 큰 양보” 입장 고수 전대·대선 앞두고 민주당 역학관계 영향 촉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유치와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둘러싸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사이에 미묘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추후 펼쳐질 정당대회와 대선 후보 경선 등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과학벨트 문제와 관련,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충청권에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학벨트 유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면 충청권을 잃고 정권 교체는 물 건너

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인인 광주가 대국적 견지에서 충청을 크게 안아 달라”고 ‘호남 양보론’을 주장했다.

이에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과학벨트는 반드시 광주권에 입지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호남 발전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효도론’으로 맞받아쳤다.

손 대표와 강 시장은 과거 광주시장 후보 경선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감정의 앙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손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과학벨트의 호남권 유치를 골자로 하는 ‘과학벨

트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놓고도 손 대표와 지역 정치권은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서 전체 회동을 갖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나눠먹기 형식의 야권 연대나 일방적인 양보는 수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사실상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일방적인 양보 형식의 야권 연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손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득권에 집착하지 않겠다. ‘통 큰 양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당 강세 지역인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야권 연대를 위해 양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무공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 손 대표의 ‘통 큰 양보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처럼 과학벨트와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놓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손 대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호남권의 과학벨트 유치가 무산될 경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손 대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학벨트가 호남권에 부분 유치된다고 해도 이는 강운태 시장과 지역 정치권의 노력에 따른 성과로 돌아가고, 손 대표는 충청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손 대표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지역 정치권과 타 야당의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순천 보선 ‘야권연대’ 성사되나

## 허상만·신태호 등 출마 예정자 지지 선언 민주당은 박지사 ‘무공천 반대 발언’ 비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무공천 뜻을 밝힌 가운데 순천 보선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야권연대’를 지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 보선 예비후보인 허상만(67·전 농림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야권연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4·27 재·보선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진영의 승리를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며 “지난 22일 시민사회 원로와 야 4당 대표의 야권연대 공동선언문을 지지하고, 순천 보선에서 민주당진영의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출마자들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허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시민대회를 조직하고 조정하기 위한 순천지역 4당 관계자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통합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전 장관은 “시민대회 및 민주당 통합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출마 자체를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에는 출마 예정자 신태호(46) 변호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 보선에서 민주당계세력의 연합·연대로 정권교체의 출발점을 삼자”며 시민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진보세력 승리와 야권연합후보 선출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야권연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박준영 전남지사의 ‘민주당 순천 무공천 반대 발언’이 이어지자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권연대 성사를 통한 정권교체가 민심이며, 호남의 선택”이라며 “박지사의 순천 무공천 반대 발언은 스스로 민심을 거스르고 야권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박 지사를 비난했다.

도당은 이어 “박 지사는 야권연대라는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지 말고, F1사업·영산강 사업·구제역·조류독감·쌀값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부터 생각하고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순천 보선에는 현재 허 전 장관을 비롯한 허신행(69·전 농림부장관), 조순용(59·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세찬(49·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 특보), 박상철(51·경계대 교수), 구희승(48·변호사), 김영득(51·민주당 부대변인) 등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 출표를 던졌다.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대부분 ‘야권연대’나 ‘민주당 후보 무공천’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연대가 정점으로 떠오르면서 성사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광주시-전북도 유치 공조 논란속 강시장 일본서 과학벨트 유치 행보

## 고베 기초과학연구소 방문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강운태 광주시장이 일본의 대표적인 기초과학연구기관을 방문하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북도 간 과학벨트 유치 공조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2일 일본의 기초과학연구기관 이화학연구소(RIKEN) 산하 고베연구소에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운영하는 이 연구소는 지역별로 5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해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MPG)와 함께 대표적인 선진 기초과학연구기관으로 꼽힌다.

핵심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분사가 위치한 와코연구소에, 방사광가속기는 하리마연구소에 각각 설치돼 있다. 또 지역별 연구소는 뇌과학(와코), 식물 및 계보(요코하마), 방사광(하리마), 바이오(조쿠바), 재생(고베) 등으로 특화돼 있다. 강 시장이 과학

벨트를 ‘광주를 중심으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삼각벨트’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각벨트’의 당위성을 모색하기 위해 고베연구소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과학벨트는 지역특성에 따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3각 축으로 분산 배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지역별로 특성화를 이룬다면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가 전북도를 상대로 과학벨트 유치 공조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잘못 알려져 전북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전북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주시가 ‘광주·전남과 함께 과학벨트 유치에 전북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강계 두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1일 과학벨트 유치에 광주·전남과 공조할 의사가 없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22일 일본의 대표적인 기초과학연구기관 이화학연구소(RIKEN) 산하 고베연구소에 방문,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나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이에 대해 전북도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더라 유치할 안 하면 안 했다 광주·전남과 연대해서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강 부시장이 ‘전북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부시장은 “전북도에 공조를 제안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언

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전북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특정 자치단체를 돕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일각에서는 과학벨트 입지가 충청도로 결정될 확률이 있는 만큼 충청도와 공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광주 구간경계조정안은 미봉책”

## 박주선 민주 최고위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사진)은 광주시 도심균형발전위원회 ‘구간 경계조정분과위’가 23일 잠정 결정된 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미봉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광주시 구간경계조정분과위가 생활권 일부를 조정해 동구 인구를 최종 5000명 늘여나도록 한 조정안은 구간 경계 조정의 목적과 취지에서 동떨어진 미흡한 안이다”며 “변화하는 환경과 행정여건에 맞춰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변화하는 환경과 행정여건에 맞춰 이를 지속적으로 조정·보완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



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 우선될 수 없고 정치인의 이해욕심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이번 잠정안은 경계조정의 폭이 좁아 사실상 균형발전이나 도심공동화대책 보다는 국회의원 정수 유지에 치우쳤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구도심 공동화 등 구간 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선거구 유지만을 위해 5000명 또는 1만여명 빼어주는 식의 구간경계조정은 도심균형발전위원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며 “광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관광열차 여행 고객사은행사

똑같은 제주도는 싫다. 올 봄에는 **신제주관광 명소만 골라 탐방하는 한라산 관광열차여행**으로 다녀오세요!

▶ **출발일 : 3월7일, 3월14일, 3월21일, 3월28일, 4월4일, 4월11일...**

**상품1** 올레길+신제주 관광명소 탐방 3박4일

**₩179,000~** 매회 2명이상 출발보장!!

광주왕복항공

**상품2** 마라도 관광+우도유람선 3박4일

**₩199,000~** 매회 2명이상 출발보장!!

최고 인기 상품

포함일정 : 곳자왈 생태숲 및 올레길 체험, 유리의성, 카메라야힐/평화박물관, 퍼시픽랜드, 휴애리자연생활공원, 제주 에코랜드 생태공원 관광 열차 체험, 제주조랑말체험, 휘닉스아일랜드 해양공원, 해녀촌

-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일반호텔(5-6인실), 관광차량, 식사, 일정내 관광요금, 여행자보험
-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1인10,000원), 선택관광, 유가할증료 ※ 관광호텔 2인1실 이용시 30,000추가(1인)

※365일 제주도 항공권 확보 ※제주도 전지역 리조트 / 호텔 호남 총판 대리점 ※제주도 전지역 골프장 호남 총판 대리점 ※2박3일 패키지, 단체여행, 렌트카 자유여행, 관광지 할인쿠폰 판매 가능.

협찬 | **KOREAN AIR** 예약센터 투어클럽 & 스피드 골프 투어 062)382-8201